



페인트팜 'S-페인트'

유리창에 페인트 바르니 '스크린' 변신

창 통과하는 빛 투과율 조정
창 위에 상이 맺게하는 원리

페인트 칠한 부분만 화면으로
별글자모양 등 다양하게 연출



김학정 페인트팜 대표가 유리 위에 'S-페인트(S-Paint)'를 입혀 만든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조아란 기자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페인트팜-스크린페인트 'S-Paint' (042)381-3339 △ 지오아이티-Z-BIKE (042)471-2777 △ 고려도토-깨끗한독배기 '하이라이트' (055)355-1679 △ GEC-비상용 스노 체인 'SNO-STOP' (062)955-4895

유리창에서 동영상이나,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3차원 홀로그램도 아니다. 얼굴을 갖다대면 안이 환히 보이는 일반 유리창이다. 2015년 10월 김학정 페인트팜 대표가 개발한 'S-페인트(S-Paint)'를 유리창에 칠하고 빔프로젝터로 빛을 쏜 것이다. 제품은 이미 옥외광고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현재 60개국에 수출돼 해외 유명 거리에서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 가격 싸고 선명도 뛰어나 S-페인트는 창을 통과하는 빛의 투과율을 조정해 창 위에 상을 맺게 해주는 페인트다. 유리창 안쪽에 바르고 내부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한 뒤 바깥쪽으로 빛을 쏘면 창을 통과하는 빛이 페인트 염료와 부딪히며 화면을 만들어낸다.

제품은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다. 나노미터(1nm=10억분의 1m) 단위의 입자로 제작돼 창을 통과하는 빛을 나노 단위로 구현한다. 김 대표는 "영화 등을 볼 때 사용하는 반사형 스크린보다 영상 선명도가 80%가량 높다"며 "최대 200인치 화면을 구현할 수 있어 일반 상점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엔지의 한 관광회사는 제품을 활용해 가로 20m, 세로 4m의 건물 2, 3층 통유리를 광고 동영상 화면으로 만들었다. 인도와 요르단에서는 자동차 전시장의 배경 광고를 제작하는 데 사용됐다.

원하는 모양으로 화면을 만들 수도 있다. 페인트를 칠한 부분만 상이 맺히고 칠하지 않은 유리 부분은 빛이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림자 등을 볼 때 사용하는 반사형 스크린보다 영상 선명도가 80%가량 높다"며 "최대 200인치 화면을 구현할 수 있어 일반 상점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양으로 빛이 나오게 해 교육용 동영상도 보여주고 있다. 쉽게 지워지도록 제작돼 화면 모양을 바꾸기도 쉽다.

◆ "케이코보다 싼 이벤트 용품될 것" 김 대표는 2012년에 창업한 페인트 소품물 운영 중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하다 제품을 개발했다. 독특한 페인트에 반응하는 고객군을 조사하다가 뒤에서 오는 빛을 통과시켜 화면을 만드는 '리어스크린' 개념의 페인트를 알게 됐다. 부친이 40년 넘게 페인트 대리점을 했고, 8년간 페인트 회사에도 다녀본 그는 안료와 수지를 하나씩 대입해보며 직접 제품을 개발했다.

김 대표는 광고 시장을 첫 번째 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는 "유명 통신사의 대리점 100군데와 이미 계약을 마쳤다"며 "2만개에 달하는 국내 프랜차이즈업체 등에서 우리 제품을 쓰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시장에서 자리가 잡히면 이벤트 시장으로 발을 넓혀 렌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하트 모양, 글자 모양 등 원하는 모양대로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잘 지워지기도 해 기념일 이벤트 등을 하기 적합한 제품"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때 제품을 써본 이벤트 회사에서 반응이 좋았고 독일 이벤트 업체와도 계약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코보다 저렴한 이벤트 상품"으로 제품 런칭을 가능하게 해 재미있는 경험을 나누주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대전=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오경환 샘표식품 전무, 이인광 서연이화 상무,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대표, 윤재훈 종근당 상무. 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샘표·종근당·형지·삼기오토모티브·서연이화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수상

샘표식품과 종근당, 패션그룹형지, 삼기오토모티브, 서연이화 등 5개사가 올해 처음 제정된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제조업 기준)이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기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기

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삼기오토모티브는 국내 주조 부품으로는 최초로 클린룸 공정을 도입하고 폭스바겐-아우디 등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연이화는 1972년 창업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해외 투자를 통해 미국 인도 중국 등 해외 8개국에 15개 법인을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했다. 수상 업체들은 앞으로 산업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보급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5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가점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린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넥스텍 "정보보안 이상징후 탐지하는 AI 개발"

사내의 데이터 활용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추가된 가전제품 출시가 늘어나면서 정보보안업계에서는 단순 해킹보다 고객 정보에 대한 위협적인 접근과 그렇지 않은 접근을 구분하는 게 화두가 됐다. 박동훈 넥스텍 대표(사진)는 8일 "지난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기업 시큐플러스를 인수한 뒤 회사내외부의 모든 정보 흐름에서 위협적인 접근을 골라내도

록 도와주는 보안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넥스텍이 개발 중인 보안프로그램은 영업, 회계, 인사 정보부터 네트워크 보안, 엔드포인트(단말기) 정보 등 회사 내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해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프로그램 스스로 정보 흐름을 학습할 수 있어 위협적인 접근을 사전에 인지, 대비할 수 있게 한다

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7시에 퇴근하던 사원이 새벽 시간에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등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탐지해 보안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박 대표는 "국내에선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 보안업체가 매우 적고 그나마도 단말기, 회사 내부 정보 등 특정 부분에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회사

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개발이 완료되면 고객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보 유출에 민감한 금융권을 중심으로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넥스텍은 업력이 20년이 넘는 보안업체로 코스닥 상장사다. 지난 2월 일본 기업들과 보안프로그램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뉴스카페

속도 경쟁보다 자전거를 타고 연인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투어용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자전거 브랜드 자이언트 관계자는 "지난해 인기를 끈 로드바이크 판매 비중이 올 들어 40%로 10%포인트 줄어든 반면 투어용 자전거 판매 비중은 20%에서 30%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투어용 자전거는 로드바이크의 휘어진 손잡이(드롭바) 대신 평평한 손잡이(플랫바)를 사용한다. 달릴 때도 로드바이크에 비해 허리를 깊이 숙일 필요가 없어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가 적다. 가벼운 무게가 '행명인 로드바이크와 달리 가방을 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도 투어용 자전거의 특징이다. 자이언트는 투어용 자전거의 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제품 '터프로드 SLR1'(사진)을 내놨다. 국내 자전거 전문기업 삼천리 자전거도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자전거박람회에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자전거 3종을

주력 제품으로 선보였다. 하이브리드 자전거 브릭과 브릭시티, 사이클로코스 자전거 플레어 등이다. 브릭은 플랫바 손잡이를 달아 주행이 편안하며, 디스크브레이크를 넣어 제동 성능을 높였다. 플레어는 산에서도 탈 수 있도록 기어 언덕 오르기에 적합하도록 돼 있다. 삼천리는 스테디셀러가 된 사이클로코스 자전거 플레어를 4번째 내놓고 있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로드바이크의 속도가 부담스러운 이용자들이 장거리 주행에 편안한 하이브리드 자전거나 사이클로코스 자전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idol@hankyung.com

株式實名制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분쟁의 '화약고'
폭탄에 불이 붙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식실명화

주식 명의신탁의 문제점
차명주식 환원 과정의 과도한 세금 부담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명의대여자의 상속, 변신, 신용위험 등

현행 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법은 차명주식 거래행위는 물론 보유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형 '차명재산 관리현황'
10,783건 중 4,721건이 주식·출자지분

한경 경영지원단
수많은 중소기업의 주식 명의신탁을 다루어 본 경험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1522-0522 <http://clean.hankyung.com>

기업을 빛내는 생각 **한경 경영지원단**